

신행(信行)의 이사(理事)가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찰 소속 유아교육기관의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김 혜 순

동국대학교

〈요 약〉

불교유아교육학은 유아기 아동들을 위한 불교교육으로서의 종교적 실천성과 과학적 합리성을 모색하는 응용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보다 넓은 의미의 일반 종교교육에 의거한 종교적 정조(情操)교육이라기보다는 불교적 가치체제안의 종교교육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유아교육학적 관심 주제 안에서 시작되는 어머니들의 종교성 및 신행(信行)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은 유아기 불교교육학의 효과성 점검과 함께 종교교육학적 철학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를 위한 기초적인 탐색 과정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그와 같은 불교유아교육학적 연구 노력의 일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사찰소속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들을 취원 시키고 있는 어머니들의 신행의 주요 요소가 자신들의 자녀 양육 가치관 중 하나인 부모역할만족도에 각각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코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어머니들의 부모역할에 대한 심리적 만족도에 자신들의 불교적 신행이 어떠한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는 지를 직접적으로 밝혀주는 실태조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더 나아가 유아기 부모들의 신행이 일상적 삶의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불교유아교육학의 실천성과 합리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의 의미가 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들의 불교사상이해도와 신행생활 정도는 불자집단이 비불자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어머니들의 부모역할만족도는 불자여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전체 어머니들의 불교사상이해도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는 차이가 없었다. 셋째, 전체어머니들의 신행생활 정도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t=-2.11, p<.05$)가 나타났다. 넷째, 어머니들의 불교사상이해도와 신행생활 및 부모역할만족도간의 관계에서는 불교사상이해도와 신행생활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r=.65, P<.001$)이, 신행생활과 부모역할만족도간에서 정적상관($r=.14, p<.01$)이 각각 나타났다.

핵심 주제어 : 신행(信行), 이사(理事), 불교사상이해도, 부모역할만족도, 불교유아교육

* 본 연구는 2007학년도 동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I. 서 론

현대사회의 구조변화는 어느 시대보다도 더욱 빠르고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사회적으로는 심각한 저 출산의 현상, 개인주의의 만연, 빈부의 격차심화, 황금만능주의, 정신문화의 빈곤 등과 같은 위기적 현상이 나타나고, 가정적으로는 가족문화, 가족구조, 자녀양육관 그리고 부모역할에 대한 의식 등에서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사회의 급속한 서구화로 인한 사상적 가치관의 혼란이 가장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가정안에서의 부모역할에 대한 부모들의 의식 변화까지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모역할이란 한 사회를 존속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인적자원의 생산과 유지, 그리고 바람직한 아동양육과 자녀교육 등의 가정 내 가족가치와 부모책무와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좌시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더 나아가 부모역할은 우리사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정신적 위기 현상을 탈피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단위로서의 각 가정질서를 주도하는 위치라는 점에서도 현대사회에서는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로서 연구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정을 갖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심리적·사회적 안정감을 주고, 애정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또한 자녀양육은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겪게 하는 부정적 측면을 뛰어넘어 부모들이 자녀를 바람직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성숙한 성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끄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대부분의 부모들에게서 부모의 역할이란 적지 않은 양육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높은 정서적 만족감을 얻게 하는 보상적 측면¹⁾이 있다. 또한 부모들이 자녀 양육 시 갖게 되는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단순히 부모의 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의미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²⁾ 그러므로 부모역할만족도는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자녀양육에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과 자유의 박탈, 양육의 어려움 등의 비용적 측면을 상쇄시키는 긍정적인 정서적 개념³⁾으로 정의된다.

유아기 부모들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소들에 대한 선행연구⁴⁾에서는 대략적으로 성차, 교육수준, 가족수입, 연령, 사회관계망, 부모 효능감, 사회적 지원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을 부모관련변인으로 보고하여 왔다. 그러나 부모역할만족도의 관련

1) 조복희, 현온강, 「한국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제 32권 5호 97-108쪽.

2) 백경숙, 윤지영, 「부모역할만족도와 부모역할기능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39권, 1-6쪽, 2004.

3) Duke, Rose, Halverson, 「Predictors of parenting satisfaction」 Paper presented at 58th NCFR conferences. Kansas City, Missouri. 1997

4) 선행연구, 도현심·김지선, 1997; 임현신·현온강, 2002; Duke, Rose & Halverson, 1997; Guidubal & Cleminshaw, 1989; Luster & Kain, 1987

변인으로는 이미 밝혀진 요소들 외에도 부모가 갖고 있는 특정종교에 대한 신행(信行)이 자신들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자원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 개인의 신행이란 곧 그 종교가 표방하는 사상적 가치관을 자신의 실제 생활적 가치관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실천행위이며 또한 일상생활 안에서의 구체적 신행활동을 통해 더욱 그 종교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심화시켜 나간다는 점에서 그 개인에게 보다 강력한 정신적 자원으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즉 종교는 실천적인 신행을 통해 한 개인의 일상적 생활을 전반적으로 통제하는 보다 강력한 상위가치로서의 영향력을 갖게 된다.

실제로 종교는 대체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역사와 생활을 지배하는 강력한 정신적 가치로서 오랜 기간 인류의 역사 안에 존속해왔고, 종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일정부분 교육의 기능을 담당⁵⁾(박선영, 2002)해 왔다. 그러므로 수많은 사찰 및 포교원소속의 유아교육기관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⁶⁾은 곧 불교가 갖고 있는 이러한 교육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포교적 믿음에서 파생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유아기의 종교교육에 관한 연구들⁷⁾에서는 일찍부터 유아들이 자신들의 생활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종교적 심리상태가 이후 자신들의 종교성 발달을 결정짓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유아들에게 어머니로 대표되는 일차적 양육환경은 종교교육학적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유아 또는 부모들의 특정한 종교로서의 불교적 신행이 자신들의 심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연구물은 매우 희소하다. 즉 사찰이나 포교원에서 수많은 법회를 통해 부모들에게 부처님의 경전을 설해오고 있으며 대중들에게 불교의 실천적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신행을 안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정작 종교학적 관점에서 불교적 신행이 부모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노력은 매우 희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불교 신행이 생활인으로서의 자신들의 심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을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부모들의 심리적 가치관 중에서도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심리적 만족도인 부모역할만족도는 종교의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는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이다. 이는 부모역할이란 사회 구조안의 어떤 역할보다 가장 보수적인 가족적 역할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이며, 종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 개인의 생활적 가치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다 상위의 정신적 가치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모역할 만족도라는 부모들의 심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종교로서의 불교 신행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반적으로 신행이란 당사자로서의 직접적인 종교적 수행이다. 이는 佛法에 보면 教, 理, 行, 果 중에서 세번째 요소인 行法의 단계에 해당 된다⁸⁾. 그리고 불교에서는 지극한 실천

5) 박선영, 「불교의 교사관」, 『종교교육학연구』, 제 14권,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2), 94쪽.

6) 윤승용, 1997; 김혜순, 2006 재인용

7) 선행연구들: 권은주, 1998; 백경임, 1990; 황옥자, 1999; Fowler, 1991; Goldman, 1965

8) 方立天, 유희희 역, 『불교철학개론』, (서울: 민족사, 1992), 14-17쪽.

적 수행을 통해 얻은 궁극적 깨달음을 불교사상의 온전한 이해의 경지로 본다. 이에 불교에서 수행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를 다시 풀이하면, 우선적으로 불교가 갖는 종교체계의 기본적인 구조의 차이, 즉 신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체계와 달리 신을 세우지 않고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종교체계라는 점에 기인 한다⁹⁾. 곧 불교의 수승한 진리는 오직 치열한 구도과정을 통해 체득된다고 믿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동양종교로서의 불교는 타종교에 비해 더욱 수행을 강조하는 특성이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서양이 관념적 사고에 의존하는 이론과 사상 속에 실천과 수행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여기는 문화적 전통을 갖는데 비해 동양은 직접적인 직관이나 체험을 바탕으로 이론적 사상의 건립을 강조하는 문화적 특성이라는 불분명한 기류에서 기인한다. 그 어느 종교학자도 이러한 명확한 구분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며 차별을 용납할 근거는 미약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모든 학자들은 이러한 구별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듯¹⁰⁾이 보인다. 이는 아마도 동양에 대한 서구적 편견과 동양학자들의 서구적 논리체계를 서로 혼동하여 이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편견과 오해 덕택에 동양은 서구적 학문을 익히고 서양은 동양적 취향을 갖는 것으로 서로를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실천과 이론이란 구분은 결국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

요약하면 동양종교인 불교는 관념적 사고에 의존하기보다 직접 수행을 강조하는 신앙체계를 갖는다. 즉 이같이 실천적 수행으로서의 신행을 강조하는 종교적 특성을 갖고 있는 불교이지만 종교사상에 대한 관념적 이해가 따르지 않는 수행은 없다는 점에서 신행(信行) 안에 분명이 이(理)적인 요소가 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이(理)란 이론적·사상적 이치(理致)이며 사(事)란 구체적 행동으로서의 사상(事相)을 의미한다. 더욱이 불교에서 이(理)와 사(事)는 깨달음을 위한 두 가지 큰 축으로 강조되고 있다. 즉 이와 사를 통한 적극적 신행으로서 각 개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강화시킬 것이고, 강화된 종교적 신념은 다시 자신들의 적극적인 수행으로 발전되게 된다. 이러한 맥락상에서 신행 안에서의 이와 사는 불리(不離) 불가분의 상호의존적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기초해 불교에서는 실천적 수행을 통해 깨달음이라는 완전한 이해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 더욱이 불교는 전통문화의 근간이며 그 핵심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자신을 불자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사회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 불교사상으로 교육되어져있다. 또한 불자라 하더라도 실천적 수행의 의미인 신행 활동과 불교사상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다르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불교적 신행이 각자의 심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신행에서의 이사(理事)라는 요소가 각각 규명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불교 신행 안에서의 이(理)와 사(事)라는 두요소를 불교사상이해도와 신행 활동으로 각각 정의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적으로 바람직한 유아의 성장

9) 岸本英夫. 박인재 역. 『종교학』, (서울: 김영사, 1961), 80-83쪽.

10) 岸本英夫. 최각현 역. 『종교학 종교심리학』, (서울: 불교시대사, 1993), 72-75쪽

발달을 조력하기 위해 유아교육학적 연구영역을 종교영역으로 보다 확장시키는 의미가 있다. 둘째, 유아기 부모들에 대한 종교교육학적 관점에서의 불교의 실천성과 합리성을 규명하고자하는 의미를 갖는다. 셋째, 불교 신행의 구성 요소를 이와 사로 구분하여 부모역할만족도와 연계하여 파악하고자 한 점은 종교 생활의 건강성과 종교인의 충실성을 규명하고자하는 의미가 있다. 넷째, 종교학의 연구 분야인 불교 신행을 개인의 심리적 가치관과 연계하여 사회과학적 조사방법으로 실증적으로 규명코자하는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들의 불자여부에 따른 불교사상이해도와 신행생활 및 부모역할만족도는 각각 어떠한가?

둘째, 어머니들의 불교사상이해도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는 어떠한가?

셋째, 어머니들의 신행생활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는 어떠한가?

넷째, 어머니들의 불교사상이해도와 신행생활 및 부모역할만족도간의 관계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부모들 중에서도 어머니들은 자녀에 대한 양육과 교육 그리고 종교성 방향과 실천에 제일차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들¹¹⁾이라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아져 본 연구대상으로 선정되었다.¹²⁾ 본 연구의 최종적 대상은 경상남북도와 충청도의 중소도시에 위치한 8개 어린이집의 4세-6세 유아들을 자녀로 둔 561명의 어머니들이다.

연구대상인 어머니들은 현재 사찰 및 포교원 소속의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들을 취원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불자이거나, 적어도 불교에 대한 배타성이 적은 잠재적 불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최초에 어머니들에게 배부된 설문지는 총 680부였으나 회수된 595부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한 561부가 최종 분석 자료가 되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어머니들의 연령은 주로 20, 30대가 대부분으로 20대는 296명(52.7%), 30대는 263명(46.8%), 40대는 5명(0.9%)이었다. 학력은 고졸이하가 260명(46.1%), 전문대학이 156명(27.7%), 대졸이상이 146명(26.0%)이었다. 또한 가정수입은 150만원-250만원대의 가정 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자녀수는 1명이 96명(16.7%), 2명이 385명(68.3%), 3명이상이 85명(15.1%)으로 2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가 371명(66.3%)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 87명(15.4%), 사무직 51명(9.0%)순이었다. 어머니들의 불자

11) Fowler, J. W. "Stages of faith consciousnes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52. 1991.

12) 김혜순, 「선교이해도와 수행태도간의 관계」, 『종교교육학연구』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제 23권, 2006), 139-140쪽.

여부는 불자인 어머니가 205명(36.3%), 비불자인 어머니가 358명(63.5%)로 비불자인 어머니가 더 많았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특정한 종교로서 불교 신행(信行)을 이(理)와 사(事)라는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즉 전반적인 불교사상이해도를 신행(信行)에서의 이(理)라는 차원으로, 그리고 불교적 실천행동의 구체성으로서의 신행활동을 신행에서의 사(事)라는 차원으로 연결시켜 보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신행(信行)에서의 이(理)와 사(事)를 위한 척도는 곧 불교 사상이해도 척도와 신행생활척도로 각각 구성되었다.

1) 불교사상이해도 척도

본 연구를 위해 불교관련 문헌고찰을 토대로 불교사상이해도 측정도구가 개발되었다. 2인의 불교 관련 교수 및 전문가로부터 일차로 구성된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를 검토 받았으며 이후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주성분 분석을 통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본 척도의 하위변인을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불교사상 이해도란 불교의 경전이나 교리에 관한 이해도와 불교사상의 실천적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불교에 관한 문화 관습적인 이해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신행에서의 이(理)로서의 차원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불교사상이해도 척도는 교리에 대한 이해도, 수행에 대한 이해도, 문화 관습적 이해도의 하위요인으로 분류되며 총 32문항으로 구성된다. 본고에서 이해도란 실천적인 행위로 나타난 불교사상의 이해의 정도가 아니라 관념상의 알음알이의 정도를 뜻한다. 예를 들면 수행에 대한 이해도 또한 불교수행에 대한 관념상의 이해 수준만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점수는 32점부터 160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교리에 대한 이해도,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도, 문화 관습적인 이해도가 높은 것이다. 척도의 문항 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교리에 대한 이해도가 .73, 수행에 대한 이해도가 .83, 그리고 문화, 관습적 이해도는 .91이었다. 하위변인의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교리에 대한 이해도: 불교경전이나 교리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말한다.

수행에 대한 이해도: 불교공부를 위한 실천적 수행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말한다.

문화, 관습적 이해도: 불교를 경전이나 교리에 대한 이해나 수행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아니지만 문화 관습적인 알음알이로 이해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신행 생활 척도

본 연구를 위해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관한 문헌고찰을 토대로 신행생활의 측정도구가 일

차로 구성되었다. 이후 2인의 불교 관련 교수 및 전문가로부터 구성된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가 검토되었으며 자료수집 이후 확인적 요인분석과 주성분 분석을 통한 요인분석이 시행되어 본 척도의 하위변인이 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부처님의 수행에 관한 실천적 가르침인 삼학의 내용으로 신행생활을 풀이하고자 하였으며 신행생활은 신행 안에서의 사(事)적인 차원으로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의 신행생활 척도는 요인분석과정에서 삼학의 계, 정, 혜 중에서 계와 혜의 두가지 하위요인만으로 분류되었으며 총 29문항으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있다. 응답점수는 29점부터 145점 사이에 분포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 계, 혜가 높은 것이다.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에 의한 신뢰도 Cronbach's α 는 계가 .92, 혜가 .85 이었다. 하위변인의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계: 행위, 습관, 도덕, 정성 등을 가리키는 것(정어, 정업, 정명)(보시, 지계, 인욕, 정진)

정: 산만하고 차분하지 못한 마음을 집중하여 평등하고 편안한 정신 상태를 일컬음. 따라서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한 실천 혹은 교육을 의미. 삼매, 선정, 명상, (정념과 정정, 정정진) (선정)

혜: 반야로서 도리를 명석하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마음의 작용을 일컬음. 그러므로 혜학 공부란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 맑고 깨끗한 본래의 '나'를 깨닫는 공부(정견과 정사, 정정진)로 본다.

3) 부모역할만족도 척도

본 연구에서 부모역할만족도는 부모들이 자녀양육에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과 자유의 박탈, 양육의 어려움 등의 비용적 측면을 상쇄시키는 정서적 개념으로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 부모역할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는 Duke, Rose와 Halverson (1997)의 Parent Satisfaction Scale(PSS)¹³⁾로서 국내에서 서혜영¹⁴⁾이 번안 수정한 도구가 그대로 사용되었다. 문항의 예는 "자녀를 낳는 것은 모든 희생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다"이다. 본 척도는 Likert 식 7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의 7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위 척도의 신뢰도는 .77이다.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예비조사가 2006년 6월 한 곳의 유치원 어머니들 8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예비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된 질문지에 대해 스님1인과 불교학전공 교수 1인

13) Duke, Rose, Halverson. 앞의 글.

14) 서혜영,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갈등과 부모역할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의 내용타당도 검토가 이루어졌다. 완성된 질문지로 시행된 본조사가 2006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경상남북도와 충청남도의 사찰소속 유아교육기관 8개소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를 위해 본 연구에 대한 취지와 절차에 대한 설명이 우선적으로 조사대상 유아교육기관의 원장들을 방문해 이루어졌고, 방문기관 중에서 본 연구에 우호적인 협조의사를 밝힌 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본 조사에 대한 안내문과 질문지가 배포되었다. 응답된 어머니들의 질문지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직접 수거하여 본 연구자에게 전달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각 변수의 하위척도 구성을 위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이 실시되었다. 어머니들의 불자여부에 따른 불교사상이해도와 수행생활 및 부모역할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이 시행되었으며, 불교사상이해도와 수행생활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이 각각 시행되었다. 마지막으로 불교사상이해도와 수행생활 및 부모역할만족도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불자여부를 통제한 부분상관분석이 실시되었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어머니들의 불자여부에 따른 불교사상이해도와 수행생활 부모역할만족도의 경향성

어머니들의 불자여부 응답에 따른 불교사상이해도와 수행생활 및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1>과 같다. <표 1>에 따르면, 불자여부에 따라 불교사상이해도와 수행생활은 모든 하위변인 및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부모역할만족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불교사상이해도는 불자인 어머니는 $M=2.96(.65)$, 비불자인 어머니는 $M=2.32(.54)$ 로서 불자인 어머니의 불교사상이해도가 더 높았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11.84, p<.001$). 또한 수행생활은 불자인 어머니는 $M=2.77(.67)$, 비불자인 어머니는 $M=2.01(.49)$ 로서 불자인 어머니의 수행생활이 더 높았으며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14.21, p<.001$).

2. 어머니들의 불교사상이해도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

어머니들의 불교사상이해도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다. 불교사상이해도의 집단구분은 불교사상이해도의 전체 빈도에서 상위 25%와 하위 25%를 산출하여 상위집단을 불교사상이해도가 높은 집단, 하위집단을 불교사상이해도가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2>에 따르면, 불교사상이해도에 따라 부모역할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세히 살펴보면, 불교사상이해도가 낮은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M=5.20(.82)$, 높은 어머니는 $M=5.12(.93)$ 로서 불교사상이해도가 낮은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의 점수가 더 높았지만 유의한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

〈표 1〉 어머니들의 불자여부에 따른 불교사상이해도와 신행생활부모역할만족도의 경향성 (N=561)

	불자여부	N	M(SD)	t
문화관습	여	205	2.26(.92)	10.63***
	부	356	1.51(.59)	
수행방법	여	205	3.25(.82)	9.54***
	부	356	2.61(.68)	
교리경전	여	205	3.35(.62)	8.43***
	부	356	2.85(.77)	
불교사상이해도	여	205	2.96(.65)	11.84***
	부	356	2.32(.54)	
계	여	205	2.20(.75)	14.96***
	부	356	1.36(.41)	
혜	여	305	3.34(.73)	10.60***
	부	356	2.67(.71)	
신행생활	여	205	2.77(.67)	14.21***
	부	356	2.01(.49)	
부모역할만족도	여	205	5.18(.78)	-.72
	부	356	5.22(.70)	

***p< .001

〈표 2〉 어머니들의 불교사상이해도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 (N=282)

	불교사상 이해도	N	M(SD)	t
부모역할만족도	낮다	142	5.20(.82)	.81
	높다	140	5.12(.93)	

다. 다시 말해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시 갖게 되는 부모역할만족도는 불교사상이해도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어머니들의 신행생활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

어머니들의 신행생활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3>과 같다. 신행생활의 집단구분은 신행생활의 전체 빈도에서 상위 25%와 하위

〈표 3〉 어머니들의 실행생활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 (N=273)

	실행생활	N	M(SD)	t
부모역할만족도	낮다	133	5.18(.80)	-2.11*
	높다	140	5.36(.61)	

* $p < .05$

25%를 산출하여 상위집단을 실행생활이 높은 집단, 하위집단을 실행생활이 낮은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 3>에 의하면, 실행생활에 따른 어머니들의 부모역할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실행생활이 낮은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는 $M=5.18(.80)$, 높은 어머니는 $M=5.36(.61)$ 로서 실행생활이 높은 어머니들의 부모역할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볼 수 있다($t=-2.11$, $p<.05$). 즉, 실행생활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과 자유의 박탈, 양육의 어려움 등의 비용적 측면을 상쇄시키는 보상적 측면으로서의 정서적 개념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부모역할에 대한 지각을 보상적 개념인 만족도의 차원에서 고려해볼 때,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보편적인 성인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어머니로서 느끼는 기쁨과 유능감의 영역이다¹⁵⁾(백경숙, 윤지영, 200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어머니들의 불교적 실행생활의 정도에 따라 어머니들의 부모역할만족도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어머니들의 실행생활이 자신들의 자녀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성인으로서의 전반적인 만족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나타낸다고 보여 진다.

4. 어머니들의 불교사상이해도와 실행생활 및 부모역할만족도간의관계

어머니들의 불교사상이해도와 실행생활 및 부모역할만족도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변수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머니들의 불자여부를 통제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불교사상이해도와 실행생활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r=.65$, $p<.001$)가 나타났으나 불교사상이해도와 부모역할만족도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행생활과 부모역할만족도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r=.14$, $p<.01$)가 나타났다. 결과는 <표 4>에 나타나있다. 즉, 불교사상이해도가 높을수록 실행생활이 높고, 실행생활이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는 높다. 그러나 불교사상이해도와 부모역할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없고 실행생활과 부모역할만족도간에서 상관관계가 나타났음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부모역할만족도에는 실행생활이 보다 더 의미 있는 변인이라고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15) 백경숙 윤지영, 앞의 글

〈표 4〉 어머니들의 불교사상이해도와 신행생활 부모역할만족도간의 관계 (N=561)

	불교사상 이해도	신행생활	부모역할 만족도
불교사상이해도			
신행생활	.65***		
부모역할만족도	.00	.14**	

p< .01, *p<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들의 불교적 신행(信行)이 자신들의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에 불교사상이해도를 이(理)로 그리고 신행생활을 사(事)로 구분하여 신행 안에서의 이와 사라는 측면이 부모역할만족도라는 심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어머니들의 불자여부에 따른 불교사상이해도와 신행생활 그리고 부모역할만족도의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어머니들의 불교사상이해도와 신행생활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를 각각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불교사상이해도, 신행생활, 부모역할만족도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들의 불자여부에 따른 불교사상이해도와 신행생활 부모역할만족도의 경향성에서는 불자여부에 따라 불교사상이해도와 신행생활은 모든 하위변인 및 총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부모역할만족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불교사상이해도와 신행생활 모두 불자인 어머니들이 비불자인 어머니들보다 더 높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부모역할만족도에서는 불자이거나 비불자간에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불자여부는 불교사상이해도와 신행생활에서의 유의한 차이를 만들 어내었으나 부모역할만족도에서의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둘째, 어머니들의 불교사상이해도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의 차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어머니들의 불교사상이해도의 정도는 어머니들의 부모역할에 대한 보상적 개념인 행복감과 만족감으로 표현되는 부모역할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불교사상이해도는 단순히 불교사상이나 근본교리의 이해정도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보다 종합적인 불교사상에 대한 이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근본교리, 수행태도, 문화 관습적인 접근의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구성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사상이해도가 부모의 구체적 자녀양육 과 연관되는 심리적 가치관으로서의 부모역할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함을 나타낸 위 연구결과는 하나의 종교로서의 불교사상의 이해가 관념적인 이해수준에 머물고 있다면 구체적 생활 장면안에서

의 심리적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음을 의미 한다.

셋째, 어머니들의 신행생활에 따른 부모역할만족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신행생활의 점수가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양육에서 느끼는 경제적 부담과 자유의 박탈, 양육의 어려움 등의 비용적 측면을 상쇄시키는 보상적 측면이라고 하는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이 더 높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들의 신행생활이 자신들의 자녀양육에서의 어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정서적 만족감으로서의 정신적 자원이 되는 기능적 측면이 있다고 풀이된다. 또한 위의 연구결과는 불교가 갖고 있는 종교 교육적 가치는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신행생활 안에서만 그 교육적 가치가 보다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음을 확인시켜준다고 보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첫 번째, 두 번째 연구결과와 관련시켜 살펴보면, 스스로가 밝히는 불자여부라는 사실 그리고 실천적 수행이 따르지 않는 이(理) 차원의 불교사상이해도에 모두 자신들의 생활적 가치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를 어머니들의 종교 활동이 유아기 자녀양육에서의 지배적인 역할로서만이 아니라 성장한 자녀들의 정신세계라 할 수 있는 종교성의 방향과 실천을 안내하는 역할로서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고 밝힌 본 연구자의 이전 연구결과¹⁶⁾와 함께 고려해 볼 때, 한 개인으로서의 어머니의 종교생활은 그 종교적 실천단계인 진정한 신행생활에 이르러야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종교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보다 강력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넷째, 어머니들의 불교사상이해도와 신행생활 및 부모역할만족도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변수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머니들의 불자여부를 통제하여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연구결과에서는 불교사상이해도와 신행생활은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불교사상이해도와 부모역할만족도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행생활과 부모역할만족도는 유의한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불교사상이해도가 높을수록 신행생활이 높았고, 신행생활이 높을수록 부모역할만족도는 높았다. 그러나 불교사상이해도와 부모역할만족도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러한 위의 연구결과는 불자들의 신행활동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충실한 신행생활로 뒷받침되지 않는 종교생활은 어머니 자신들의 심리적 가치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사상이해도와 신행생활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준 위의 연구 결과는 불교사상의 이해와 실천적 덕목인 신행생활이 모두 불교안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볼 때 당연한 귀결이라고 보아져 불교에 대한 관념적인 이해가 본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의미가 있다. 또한 신행에서의 이(理)와 사(事)라는 차원이 양적 척도인 불교사상이해도 척도와 신행척도로 연결되어 규명된 점은 종교교육학 연구를 발전시킨 의미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종교생활은 자신들의 가정 내 부모역할에 대한 심리적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순히 불교 신행에서 이(理)적인 추구보다는 보다 실천적인 덕목으로서의 신행생활인 사(事)가 수반될

16) 김혜순. 앞의 글.

때에만 어머니들의 삶에서 불교라는 종교는 자녀양육을 포함한 일상적인 삶의 의의와 존재감 그리고 행복감이라는 가치와 유의하게 관련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보겠다. 그러나 비록 본 연구에서 이(理)보다는 진실한 신행생활 곧 사(事)를 실천하는 것이 어머니들의 심리적 가치관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옴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여전히 이(理)와 사(事)는 신행 안에서의 중요한 요소들로 상호의존적이라고 보겠다. 즉 이(理)없이 사(事)가 없고, 사(事)없이 이(理)가 존재할 수 없다는 불교에서의 가르침은 곧 이치(理致)와 실천(實踐)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두 가지 큰 축으로서 신행에서도 같이 강조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불교의 이해도와 신행생활이 모두 언어로 표현된 질문지안의 문항에 대한 응답자들의 반응으로만 평가되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이는 측정문항에서 제기한 질문 범위 내에서 응답반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 그리고 개인 간 차이는 측정될 수 없었다는 제한점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불교사상이해도와 신행생활정도는 모두 궁극적 깨달음을 향한 치열한 구도의 노력들의 수준을 파악하기 보다는 이해의 정도나 실천적 노력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하는 비교적 양적인 측정일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둘째, 측정도구의 하위변인을 구성하고 분석하기 위해 일차 구성된 질문지의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신행생활의 경우 처음 연구자가 의도한 삼학 중 정(定)이 빠지고 계, 해로만 하위변인이 구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불자들에게서도 정(定)이라는 수행이 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보아지며 따라서 신행생활척도에서 정(定)이라는 요소가 객관적으로 측정되기 어려운 제한점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신행생활의 정도에서 특히 실질적인 선(禪)의 실참 단계로서의 진정한 수행은 포함되지 못하였다고 보여 진다.

셋째, 연구자의 임의로 편의표집 되었다는 제한점으로 인해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에 열거한 제한점들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유아교육학적 연구주제인 부모역할만족도에 종교생활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유아교육의 연구범위를 확장시킨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종교생활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된 질문문항들의 응답내용에 대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보다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일면 추상적일 수 있는 종교사상의 영향력이 보다 신뢰성 있는 연구방법으로 검증되었으므로 실증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믿는다.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대표성 있는 표집으로서 부모들의 보다 내면적인 심리상태에 미치는 불교의 교육적 영향력이 심층적으로 규명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권은주. 『불교아동학개론』, 서울: 양서원. 1998
- 고익진. 『불교의 체계적 이해』, 광주: 광복사 광복선원. 2005
- 김혜순. 「선교이해도와 수행태도간의 관계」, 『종교교육학연구』, 23.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6
- 김혜순. 「불교사상이해도와 양육신념 및 부모역할만족도간의 관계」 『한국불교학』, 46. 서울: 한국불교학회, 제 46집. 2006
- 도현심, 김지신. 「사회적 지지 및 부모역할만족도와 어머니의 양육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5. 1997
- 백경숙 · 윤지영. 「부모역할만족도와 부모역할지능에 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39. 2004
- 백경임. 「구체적 조작기 아동의 부처님 개념에 관한 조사연구」 『아동학회지』, 11-1. 1990
- 서혜영.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갈등과 부모역할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윤승용, 『현대 한국 종교문화의 이해』, (서울: 한울, 1997).
- 임연신, 현온강. 「한국과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태도 비교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40권 11호.
- 조복희 · 현온강, 「한국부모의 부모역할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2-5
- 황옥자. 「유아기의 종교교육에 관한 교사의 종교인식 및 전망」, 『종교교육학연구』 9.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1999
- 方立天, 유영희 역, 『불교철학개론』, 서울: 민족사. 1992
- 岸本英夫. 박인재 역. 『종교학』, 서울: 김영사. 1961
- 岸本英夫 · 松本滋. 崔玄覺 역. 『종교학 · 종교심리학』, 서울: 불교시대사. 1993
- Duke, Rose and Halverson. Predictors of parenting satisfaction. Paper presented at 58th NCFR conference. Kansas City, Missouri. 1997
- Goldman, R. Readiness for Religion. New York: The Seabury Press. 1965
- Guidubaldi & Cleminshaw.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 education contemporary perspectives, edited by 51-M. J. Fine. (San diego: Academic Hall. 1989)
- Fowler, J. W. "Stages of faith consciousnes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52. 1991

원고접수: 2007년 11월 12일 1차심사: 11월 20일 게재승인일: 12월 18일

연구자 소개: 김혜순

① 전공: 아동학 / 소속: 동국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② 관심영역: 불교유아교육, 유아교육연구동향

③ 주요논저: 「선교이해도와 수행태도 간의 관계」, 「유아의 지적능력, 가상 상황에서의 보상선택유형 및 만족지연능력에 관한 연구」, 「아동의 과학적성 · 창의성 · 과학 창의적 문제 해결력 간의 관계」, 「어머니의 현대적 양육관과 아동의 행동문제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④ E-mail: heidi77@dongguk.ac.kr

Abstract

**The Effects of Practice of Buddhism on Parenting Satisfaction
- Centered on Mothers whose Children
were enrolled in Temples' Kindergarten -**

Kim, Hye Soon

Dongg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practice of buddhism on parent satisfaction. The subjects were 561 mothers whose children were enrolled 8 temples' kindergartens which were located in Gyengsangbook-Do and Choogcheong-Do. Frequency, percentage, means,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Buddhist mothers' level of the understanding of doctrine of Buddhism and practicing Buddhist belief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non-Buddhists mothers' except those on parenting satisfaction. Second, the higher mothers' understanding of doctrine of Buddhism did not show a higher mothers' parenting satisfaction. Third, the higher mothers' practicing of Buddhism beliefs showed a higher mother' parenting satisfaction. Fourth, the relationships among the understanding of doctrine of Buddhism, Practicing Buddhism beliefs and parenting satisfaction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racticing Buddhism beliefs and parenting satisfaction and between understanding doctrine of Buddhism and practicing Buddhism beliefs. respectively.

Key words : Practice, Doctrine of Buddhism, Practicing Buddhism beliefs, Parenting satisfaction. Early child education

〈부록 1〉 불교사상이해도 척도에 대한 요인행렬표

하위 영역	문 항 내 용	I	II	III
교리	1. 연기법은 불교의 사상이다.	.57		
	2. 불교에서 無明(무명)은 일체세계의 진리에 대한 무지를 의미한다.	.70		
	3. 모든 존재는 인연화합을 이루는 다섯 가지 요소로서 이루어져 있다.	.71		
	4. 팔만대장경은 불교문화유산이 아니다.	.48		
	6. 아함경이란 유교의 경전이다.	.45		
	8. 법화경은 부처님이 일대사인연으로 출가하여 중생에게 깨달음의 지견을 열어 보이시는 경이다.	.67		
	10. 반야심경은 일체 존재에 대한 집착이 허망하다는 공사상을 담고 있다.	.45		
	13. 초파일에는 절에 가서 연등을 켜는 것이다.		.67	
수행	14. 동지에 팔죽 먹는 의미를 안다.		.60	
	16. 탐,진,치 삼독심은 불교의 근본번뇌이다.		.41	
	21. 대승불교와 소승불교의 차이를 안다.		.66	
	27. 화두 공부는 승속에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		.59	
	29. 부모가 돌아가시면 절에서 49재를 지내는 것이 좋다.		.53	
	30. 백중일은 조상을 위해 기도하는 날이다.		.68	
	32. 달마도를 본 적이 있다.		.53	
문화, 관습	7. 삼법인의 가르침이 무슨 내용인지 안다.			.67
	9. 고, 집, 멸, 도 사성제가 무슨 내용인지 안다.			.65
	11. 돈오점수의 의미를 알고 있다.			.75
	12. 육바라밀이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다.			.72
	15. 6근과 6식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77
	17. 금강경의 사구계를 들어본 적이 있다.			.53
	20. 계, 정, 해 삼학의 의미를 안다.			.72
	26. 불립문자라는 말이 무엇인지 안다.			.69
	28. 간화선은 화두를 갖고 공부하는 선수행법이다.			.66
	31.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는 것보다 화장하는 것이 좋다.			.71
고유치		6.86	5.48	2.00
설명변량(%)		23.65	18.88	6.90
누가변량(%)		23.65	42.53	49.43

〈부록 2〉 신행생활 척도에 대한 요인행렬표

하위 영역	문 항 내 용	I	II
계	4. 염불과 진언, 계송을 수지, 독송한다.	.69	
	5. 명상이나 참선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	.58	
	6. 사찰이나 포교당의 법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다.	.75	
	7. 사찰이나 포교당의 경전공부에 참여 한다	.77	
	8. 108배나 1000배등의 참배를 즐겨 한다.	.70	
	9. 화두 공부를 하고 있다.	.62	
	10. 사찰이나 포교당의 수련대회나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적이 있다.	.57	
	11. 경전이나 불경을 사경 한다.	.65	
	18. 위급한 때에도 염불이나 참선, 또는 화두를 놓치지 않는다.	.62	
	19. 불교관련 서적, 방송, TV, 인터넷사이트를 즐겨듣거나 본다.	.57	
	23. 사찰에서 입는 법복을 갖고 있다.	.58	
	24. 불교공부를 묻기 위해 큰스님을 찾는다.	.66	
	29. 간화선공부법에 관심이 있다.	.50	
혜	1. 일상생활에서 보시정신을 실천 한다.		.58
	2. 일상생활에서 계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64
	3. 참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욕하려고 한다.		.61
	20. 매사의 집착이 고통의 근원임을 안다.		.64
	21. 자비정신을 가정 및 사회봉사에서 실천하고 있다.		.70
	25.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지혜를 활용하고자 한다.		.66
	26. 무속과 정법을 구별하여 믿고자 한다.		.63
	27. 불교사상에 대한 바른 견해가 바른 수행을 가져온다고 믿는다		.72
고유치	28. 명상이나 좌선시간을 갖으려고 노력한다.		.70
		6.96	5.96
	설명변량(%)	24.00	20.56
	누가변량(%)	24.56	44.56